

이 기 일

한국 그룹사운드의 낡은 아날로그 음악

전기기타와 드럼을 중심으로 연주하며 노래도 하는 밴드의 옛 용어법인 그룹사운드에 영향력을 끼친 뮤지션으로 비틀즈(The Beatles)가 있다. 비틀즈의 고향이었던 리버풀은 런던보다 미국의 음악을 빨리 접할 수 있는 도시였는데 그곳이 항구도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미국 공군기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리버풀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최신 레코드들을 다른 곳보다 많이 접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비틀즈에게 처음으로 영향을 준 음악은 50년대 초반 미국의 락 앤 롤(rock and roll) 이었다.

한국에서 그룹사운드는 1960년대 초반 미8군 무대에서 활동하던 카피밴드가 시작인데 대부분의 그룹사운드 1세대들은 미군의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던 베가본드(AFKN)를 통하여 서양의 대중음악에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며 비틀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말한다. 당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었던 미8군 무대는 한국전쟁 이후의 시대적 상황을 특징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장소였으며 이곳에서 그룹사운드 1세대들은 비틀즈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영어로 노래하고 연주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음악을 하였다. 애드 휘(Add 4), 키 보이즈(Key Boys), 코끼리 브라더스(Elephant Brothers), 김치스(Kimchis) 등이 한국 그룹사운드의 선구자로 활동하였다.

존 레논은 밥 딜런의 음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웨일즈 작가 딜런 토마스(Dylan Thomas)로부터 밥 딜런이 큰 영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딜런 토마스의 생각을 밥 딜런이 이어받았고 그것이 비틀즈에게 전해졌다. 그렇다면 일본적인 영향을 받은 가요와 민요나 타령, 판소리를 통한 음악적 감수성이 흐르던 시절 미군의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흘러나온 서양의 음악은 우리에게 무엇이였을까. 나는 당대에 활동하였던 뮤지션을 인터뷰하고, 밴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며, 무대를 재현하여 다시 그들과 공연을 하였다. 그리고 비틀즈를 모방했던 우리의 밴드음악이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과 작용하며 만들었던 문화적 다양성을 찾아 내려 비틀즈의 진원지 영국 리버풀에서 한국 밴드 1세대의 공연과 비주얼 아카이브를 진행하려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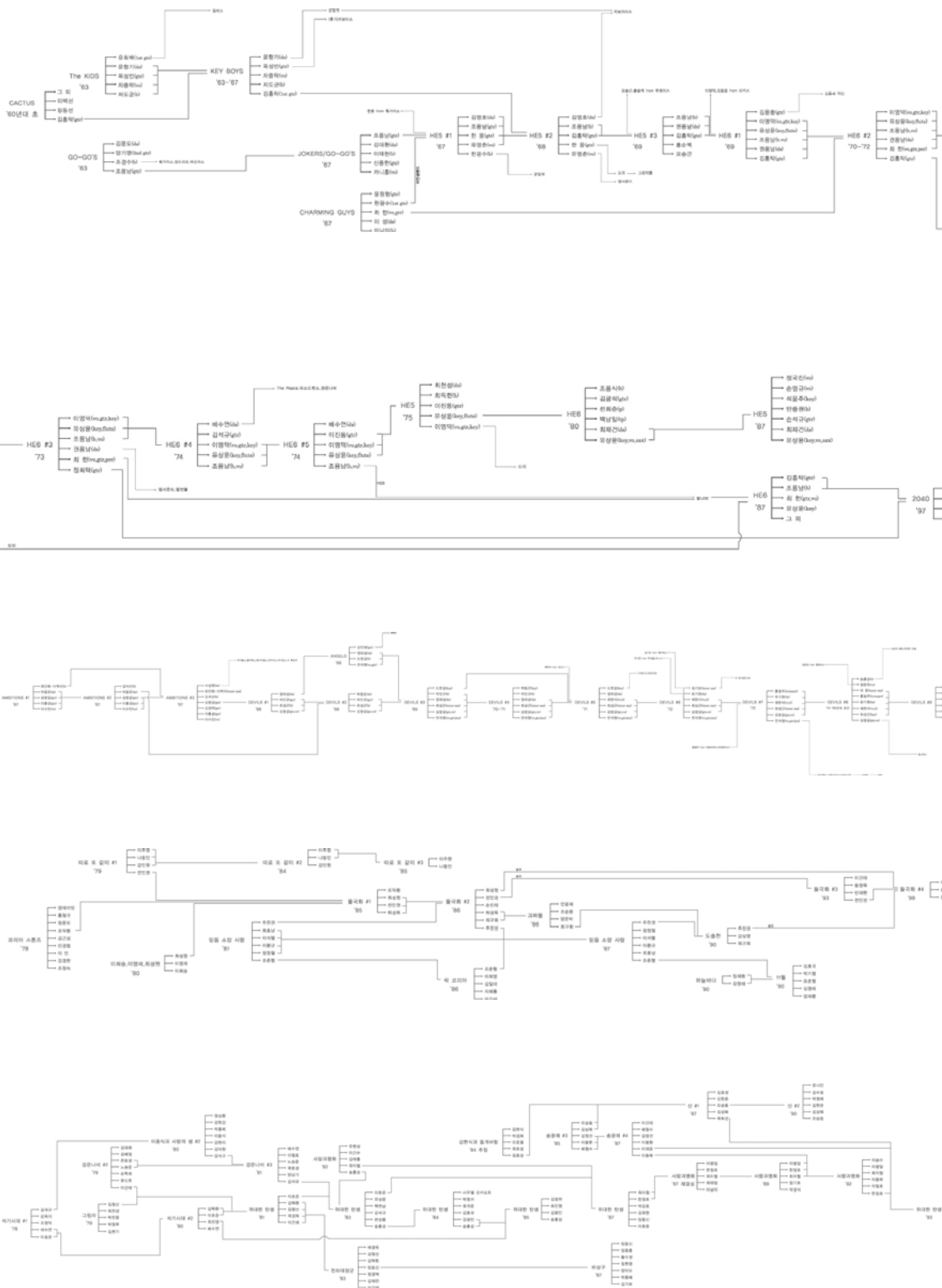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그룹사운드 음반으로는 한국의 비틀즈로 부르던 키 보이즈(Key Boys)의 '그녀 입술은 달콤해' 가 있다. 번안 곡 위주였던 이 앨범의 오리지널은 1964년 7월에 발매되었는데 1964년은 브리티시 인베이전 (The British Invasion), 비틀즈가 미국으로 진출하던 해였다.

김치스 (1965, 자료제공 심형섭), 잉크젯 프린트, 156×193, 2009.



He 5 (1970, 자료제공 조용남), 잉크젯 프린트, 156×169, 2009.





괴짜들 群雄割據 한국 그룹사운드 (1960-1980), 설치전경, 토탈미술관, 서울, 2009



인터뷰



Papa's Band and OB's Cabin, 860×420×490, Mixed media, live,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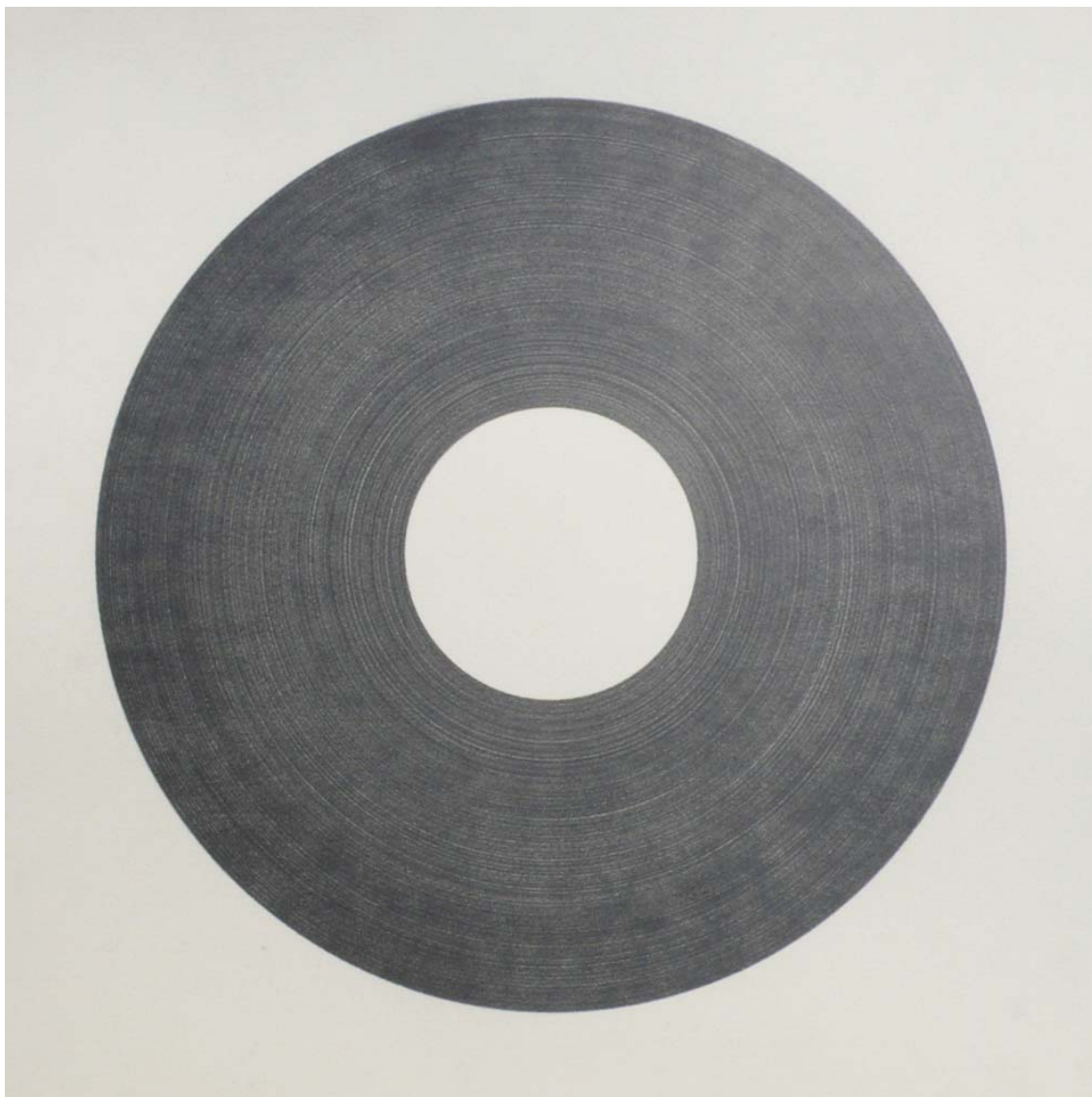
초원 1969-2009, 노래 He5- 조용남, 00:03:52 HD, 2009



Label, 잉크젯 프린트, 105×105, 2010



Hole, 종이 위에 연필, 38×38, 2011



해치 퍼레이드, 광화문 광장, 2009

